



간호사 칼럼 | 새로, 그리고 다시 쓰는 신입 알기

김다혜 간호사 (MAT)



“드르륵~끄응차!!”
Emergency cart 를 끌고
오늘도 병동으로 달려간다.
무거운 cart를 끌고 도착하
니 역시, 예상대로 환자 침대
를 둘러싼 예닐곱 명의

의료진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여기 IV route 좀 잡으세요!”, “Ambu bagging 해주세요!”, “거즈 좀 많이 주세요!”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속을 힘겹게 비집고 환자를 확인하니 기관절개관 주변으로 피가 흥건한 상태였다. 이 환자는 기관지 침범이 된 갑상선 암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던 중 기관절개관에서 갑작스럽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의식소실로 심폐소생술 방송이 난 상황이었다. 먼저 환자 모니터를 연결하고, 의식을 확인하니 다행히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로 회복된 상태였다. 담당의는 연신 피 묻은 거즈를 새 것으로 교환하며 환자보다 더 새하얗게 질린 듯한 모습이었으나 의료비상팀(Medical alert team, MAT) 도착 후 반색하였다. 처음보다 출혈이 많이 멈춘 것 같으며 안도의 한숨인지, 지친 한숨인지 모를 긴 한숨을 내뿔었다. 혈관 조영실로 내려가 출혈 부위를 막는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환자 주변 정리 후 이동하려고 한 순간, 겨우 멈춘 듯 했던 출혈이 다시 시작되었고, 서둘러 환자와 함께 혈관 조영실로 이동하였다. 시술 중에도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수혈을 지속하였고, Epinephrine 을 투약

하였다. 시술이 끝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MAT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그제서야 나의 양 팔과 다리에 묻은 피가 눈에 들어왔다.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온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지금 내 모습이지 않을까?

2008년 입사하여 외과계중환자실 II 에서만 9년 넘게 근무했다. 나름 뽕송뽕송 했던 20대를 넘기고 30대 초반이 되어 이제 부서에서도 10년차 중견 간호사의 역할을 할 때쯤, 순환 간호사로 한달 간 내과계중환자실 I 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MAT 간호사 원내 공모가 공지되었고, 수간호사님의 추천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지원 당시에도 MAT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고, MAT는 단지 심폐소생술 업무를 지원해 주는 팀으로만 알고 있었다. 잘 알지 못하는 부서에 지원 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MAT 지원 근무를 하고 있던 후배 간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MAT는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병동 악화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여러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지원 인력 답게 저널 리뷰 및 발표, 학회 참석, 교육강사 활동, 논문 저술 등의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이런 말들을 듣고 보니 MAT 지원이 더 망설여 졌다. 중환자실에서만 10년차로 일하던 내가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일할 수 있을까? 거기다 학구적인 분위기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니! 이미 지원한 상태인지만 후배 간호사에게 괜히 물어봤다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상태였다. 부담감은 어깨를 짓누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여러 선배 간호사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내가 알고 있는 너라면, 어디를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야!”,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너와 MAT 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말에 용기를 내게 되었고, 올해 8월부터 현재 MAT 전담 간호사로 당당히 근무하고 있다.

MAT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놀란 점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MAT 주 업무는 심폐소생술 지원 업무 이외에 병동의 급성 악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적절한 중재를 시행하는 중증 환자 치료 및 간호를 비롯한 병원 내 개선 활동, 병동 간호사 교육, 자문 활동, 병원 내 의로기기 점검 등 수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에게 병동 급성 악화 환자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은 아직도 많이 어렵다. 특히나, 외과계 중환자실 출신인 나에게 있어 내과계 환자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는, 그런 악화 환자들을 파악하고 발견하는 것이 부담도 되고, ‘내가 잘못 파악하고 놓치는 환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지만, 그럴 때 마다 “처음에는 당연히 모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시는 MAT 선배 간호사님들 덕에 현재 그런 걱정과 어려움들은 점점 극복해 나가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ICU News

MICU1

- 11월 신입 간호사: 이은 간호사
- 비차 캠프(10/26~27): 오해연, 노혜숙
- 진료과 협의회(11/7)
- Cheer up(11/8~9): 광선희, 남궁순희, 조보슬

SICU1

- 11월 신입간호사: 황병철, 정소나 간호사
- 국립중앙의료원 ICU 간호사 연수(11/20~24)
- 행복나누보살(11/30): 이의령, 박남규, 유도임 간호사

ACU

- 비차캠프과정 참석(11/2~3): 우혜민
- 대한 부재병 학회(VT Symposium 2017) 참석(11/4): 영현주
- 9월 신입간호사 조혜린 독립(11/10)
- 장미오피: 유주혁(11/13~19)

CCU

- 11월 신입간호사: 김미령, 윤세령
- 신장집단간담회 참여(11/2): 고혜경 조무원님

MICU2

- 11월 신입간호사: 김근영 간호사
- 진료과와 다과회(11/1): 우리 AMC [도시락 데이] 지필
- 5월 신입간호사 독립 후 100일 축하(11/23): 강민지, 채수현
- Cheer up 강사(11/8~9): 박영 간호사

SICU2

- 11월 신입간호사: 정다우리, 이소정, 박상형
- 국립중앙의료원 연수(11/22~24)
- 중환자재활 학술대회(11/25): 총 6명 참여
- 결혼(11/17): 이수연

NICU1

- 대한회과 추계 학술대회(11/2): 임승복, 김진연
- 11월 신입간호사: 이아은주
- 대한신생아학회 경인지회 신생아 인공호흡기 심포지엄(11/5): 김미영씨 6명
- 대한중생아의학회 추계학회(11/25): 박소영 외 2명
- 선천선상장병센터 심포지엄(11/26): 이선영

PICU1

- 테마-커피행(10/18): 안리브라, 윤미나
- 자력간호사 PCS 교육(10/24)
- 부서 conference(10/31)

NRICU

- 11월 신입간호사: 오주희, 이지은
- 흉부외과 추계학회: 강이승 외 2명 참석
- 산과과 추계학회: 이서경 외 8명 참석
- 울산대 대학원 호흡기계, 산과계 심습

NSICU

- 결혼(11/18): 문유경

MAT

- 교육-영상업사의 이해(11/14): 손정숙
- 국군-DISC 세미나 과정(11/21): 손정숙
- 가사-병동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교육(11/28): 한영자

RT

- 11/11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학술대회: 서희정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MICU1/ACU/동관ICU	서희정	886244	
MICU2/SICU1:2	서가진	886241	T.62444
일반병동	김은영	886242	



(앞 페이지에 이어서)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꼼꼼하게, 옆에서 챙겨주시는 선생님들 덕에 입사 10년차인데도 늦둥이 막내 신규간호사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을 만끽하는 중이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달리기를 시작하는 아이처럼, 부끄럽지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알아가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

처음에는 망설여지고, 두렵고, 어려웠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나에게서는 혼자 극복하는 것보다, 주변에 수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어 한 발자국씩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다.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힘을 내어 열심히 나아갈 것이다.

꿈담동 서당

온고지신 溫故知新

따뜻할/익힐 온 溫, 연고/선례 고 故, 알 지 知, 새로운 신 新



뜻) 옛 것을 익히고 그것으로부터 미루어 새 것을 알

예문) 온고지신이라는 말과 같이 고전이나 역사 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격이야기 | 오늘도...나는

문경은 간호사 (SICU1)



'진정 마음을 다하여 품격 있는 간호사였는가' 생각해본다. 부서의 특성상 외상을 당해 입실한 환자 앞에서 비록 두려운 눈맞춤이었지만 품격 있게..

보호자로 온, 아는 형님들에게도 진심을 다하여 품격 있게.. 응대하였는가..

중환자실에서 살며, 다급하게 움직여오다가도 나의 환자와 보호자님에 다가가서는 격을 다해 진심 어린 간호를 하였는가. 오늘 그랬는가.. 퇴근 후 잠을 잘라치면 문득 생각이 떠오르고,

또, 매달 품격을 다한 동료들 되새겨볼라치면 다시금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품격의 전당에서 만개한 개나리꽃과 함께 품격의 기품을 풍기는 선현우 임상강사 선생님이 곁에 있더라도 할라치면, 그 품격의 기운에 머리끝까지 쭈뼛해지며 내가 진정한 품격을 다했을까. 품격을 다해보고자 다시

금 리셋 된다. 마치 손 위생을 더 열심히 과하게 하게 되는 그때처럼.. 품격을 다한 언행을 더 잘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무언의 영향력이 스민다.

그는 그런 분이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때에도 깊은 진정 상태에 있는 환자가 들을 수 있으니 조용히 전달해 줄 것을 코멘트 하였고,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늘 솔선수범 언행을 제공해주신다.

시술 전에도 환자에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러주고, 시술 중에도 적절한 진정제와 함께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시술 후에도 고생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잊지 않는다.

어려운 의학적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품격 있는 언행에 대해 장대한 설명과 함께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와 함께 일을 할 때면, 매 순간이... 우리는 늘 묘하게 시험에 드는 기분이다. 이러한 품격 선 선생님이 항상 함께하니 우리는 늘 품격을 잠

시 놓을 틈도 없이, 혹시나 일순간의, 품격이 깃들지 않는 언행으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긴장한다.

수면 위의 백초처럼 품격의 기품을 드리우며 임해야 하는 의업의 현장에서.. 분명,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에 대한 허탈함과 여러 복잡미묘한 희로애락의 상황으로 심신이 피로할 진데, 늘 어둠의 언어가 섞이지 않은 반듯한 그의 언어세계에도 칭찬해마지 않는다. 몇 해 전, (그 때는 그것을 품격으로 명해야 함을 알지 못했으나) 당신의 환자에게 마음을 다하던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같아 오랜 시간 지켜본 나로서는, 늘 경의의 마음이 가는 의로운 분이다.

선 선생님의 품격실화는 무한하나 당신의 예찬론에 부끄러워할 그를 위해, 또 수많은 댓글에 나의 몸을 보신 코자 아에 마칠 것이다.

마음을 전하는 책

2009년에 MICU2로 입사 이후 2017년 한해는 가장 바쁘고 빠르게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휴직 후 다시 병동에 적응하고, 프리셉터 역할도 하면서 많은 선배 간호사의 도움과 함께 더욱 성장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취 하는 저를 엄마처럼 신경 써 주시고 돌봐 주시던 천유경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된장찌개 끓여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항상 제 마음속의 엄마 같습니다. 엄마 같은 선생님께서 전달 해주신 책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일에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미소나, '엄지 척! 제스처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동료와 출근 전에 티 타임이나 퇴근길에 치킨에 맥주 한 잔 먹을 때 큰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바쁜 근무 뒤 암막 커튼이 드리워진 집에서 혼자 가끔은 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개! 하는 감성과 외로움에 빠져서 한 없이 우울해 하기도 합니다. 가끔 일년 전 입었던 바지 단추가 터질 것 같을 때도 지난 밤 근무 동안 먹은 라면을 후회 하면서 많이 우울하구요. 분명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 할 수 있게 나,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부촉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발전하는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라고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음악이 바질 수 없었습니다. 저의 소녀적인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문득 CSICU에 헬퍼 갔을 때 보았던 김현진 선생님이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음반을 내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음반 '소풍'을 내셨다는 소식과 첫째 자음이 동생도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현진 선생님께 우주적 관점으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여 간호 영역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의 세계관과 음악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전달합니다.



From. 이경아 간호사 (MICU2)



To. 김현진 간호사 (CSICU)

"코스모스"
(칼 세이건 저)





감정적인 사람이다. 하루를, 아니면 일생을 얼마나 지배 받았는지 모르겠다. 덜 익은 청보리 같은 날에는 마냥 휘둘리는 것이 특권인 줄 알았었다.

그것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은 다져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른 이라기보다 사회인으로서 필수 과목 같은 것이다. 일 분이라도 좋다. 이토록 붉은 마음을 청회색의 시멘트로 덧칠해야 하는 과정, 그것이 매일 필요하다. 빼곡한 출근길에 눈을 감고 이어폰에 고요히 흐르는 음악에 집중한다. 몽근하게 졸인 와인 느낌의 첼로 소리일 때도 있고, 비트와 기계음이 짝찬 부대찌개 같은 유행가 일 때도 있다. 오롯이 책에 집중할 때도 있다. 아름다운 쓰레기 같은 패션 잡지일 때도 있고 양감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흑연으로 그린 소설일 때도 있다. 요는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자기 안에서 내보내냐 하는 것이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시름한 땀내를 풍기는 소년의 얼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아 완전히 익은 여드름 같은 마음의 파편들이 조금은 잦아 드는 위안이 든다. 되도록 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어쩌면 터뜨릴 용기가 어느새 소멸되었으리라는 체념도 함께.

오늘은 밥을 볶을 것이다. 삼 일 전에 지어 냉창고에 곱게 잠들어 있는 밥을 꺼낸다. 차갑다. 고슬고슬하다. 비록 힘을 잃었지만 일단은 알알이 살아있다. 전자레인지에서 미지근해져야 탱글하게 잘 볶아 질 것이다. 뜨겁게 달군 육에 너희들, 들어 가야 해. 노란 계란물을 입힐 것이고, 거기서 중불 위에 황금빛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계란 두 개를 함께

꺼낸다. 항상 백색관을 산다. 가격 차이는 몇 백 원이지만 꺼낼 때마다 우아한 부자가 된 느낌이고 조금 더 고소한 것 같은 착각도 든다. 물론 근거 없는 취향적인 부분이다. 껍질을 깨서 미리 풀어둔다. 소금도 한 꼬집. 그리고 냉동된 파를 꺼낸다. 아주 잘게 썰어진 채 빙하처럼 얼어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대파가 참으로 애매한 식재료다. 크림처럼 흰 머리와 대나무처럼 곧게 뻗은 잎이 참으로 매력 있지만, 이것을 산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파 중심의 식단이 될 것이다. 채소 칸에서의 묵힘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늘 잘게 썰어둔다. 냉동 전용 보관포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쓴다. 아주 단단하게 얼어있기 때문에 칼등 같은 도구로 깨야 한다. 국물요리에는 그대로 넣어도 상관 없지만 오늘처럼 볶을 때는 미리 물에 넣어 해동시킨다. 십 분 정도면 풀어지고 덕분에 파의 향이 꽤 상실되기는 하지만 이게 적당한 타협점이라 생각한다. 늘 파가 필요하지만 언제나 생파를 쓰는 것은 사치이다. 작은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탈탈 툰다.

석탄처럼 검은 육을 꺼낸다. 꿀 같은 카놀라유를 충분히 두른다. 강불 위에 내버려 둔다.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일 때가 있다. 복사열이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시야가 흐려지는 타이밍이 분명 있다. 그때 녹여둔 파를 한 번에 넣고 동시에 나무주걱으로 휘젓는다. 수분을 충분히 제거했다 하더라도 일단 냉동 상태였기에 기름이 좀 튄다. 그럴 때 가열 차게 더 볶는 시늉을 한다. 증기로 나가는 파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잡아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그러면서 일정한 크기로 썰린 파가 탄 부분 없이 노릇해지는 순간을 기다린다. 누런 갱지의 말라 버린 모서리 같은 부분처럼 보이는 때. 불을 살짝 줄

인다. 타버린 파는 쓰기만 하다. 데워둔 밥을 투척한다.

아카시아 나무였던가. 등나무였던가. 아무튼 엄청나게 단단하다. 이것을 팔았던 일본인 상인은 자부심이 은근히 비쳤었다. 그 붉은 나무주걱으로 밥을 볶는다. 몽친 부분은 눌러서 풀어주고 파 기름이 쏠린 부분은 흐트린다. 동시에 먼저 자리잡은 파와 비벼준다. 마치 원래 한 몸이었던 것처럼 뜨겁게 지져낸다. 밥알이 일정한 반경으로 퍼질 때쯤 영롱한 천일염을 꺼낸다. 스타 세프처럼 도포하면 곤란하다.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 강도로 덜어낸다. 한 번 획 젓는다. 계란물을 넣는다. 중불이기 때문에 단 번에 익지 않는다. 그 간극에 밥알과 함께 묶어버려야 한다. 앞으로 3분은 계속 육을 흔들고 주걱을 눌러야 한다. 그래야 계란이 완벽히 익음과 동시에 밥알 하나하나를 감싸면서 요리가 막바지에 다다른다. 안쪽이 움푹 파이고 눈처럼 하얀 접시를 꺼낸다. 이제 옮기기만 하면 요리는 끝이 난다.

안정이 된다. 계란 옷을 입고 잠전히 누워있는 밥알, 십 분 전까지 냉동실에서 얼어있던 파들이 아름다운 파편처럼 박혀 있다. 무엇을 위하여 이리도 볶아되었는가. 은근한 첼로 소리도 그림 같은 소설도 아닌데 무엇보다도 위안이 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감정의 토사물 같은 것이다. 삶과 나의 완충제인 셈이다. 그대로 두기로 한다. 샤워를 한다.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 이어폰은 챙기지 않았다. 오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날은 흐리다.

좋은 글 | 걱정을 같이 마셔주는 사람

김화경 간호사(CSICU)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을 같이 마셔주는 사람.
나와 같은 시간을 마주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 혼자 마셔야 할 걱정의 양이 줄어듭니다.

언젠가부터 그 사람에게 습관처럼 내 감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을 모른 채 그 사람을 흔히들 말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이 정도도 안 받아줘?'

가끔 우리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돌아봅시다.
그 동안 이 사람이나와 함께 얼마나 많은 걱정을 마셔주었는가?
그에게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얼마나 버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손쉽게 그 방법을 택했는가?

나와 함께 걱정을 마셔주던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면 생각해 봐야 해요.
마시고 난 뒤 그 사람에게 컵을 치우게 하고 계산까지 시켰던 게 아닌가.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치워 달라고 무심코 던진 게 아닌가.

나는 뿌연 안갯속에서
그 사람 덕에 나왔는데
정작 그 사람을
뿌연 안개 속에 버려두고 오는 일.
나를 건져내 준 사람을
안갯속에 두지 마세요



기계환기에 의한 횡격막 위축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Goligher 등. Am J Respir Crit Care Med 2017 (in press)

배경

횡격막 장애는 기계 환기를 받는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킨다. 그러나 기계 환기에 의한 횡격막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의 임상적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목표

기계 환기 중에 발생하는 횡격막의 위축이 기계 환기 기간을 연장시키는지 확인하고자 함

방법

침습적 기계환기를 적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횡격막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환자의 흡기 노력(inspiratory effort)은 횡격막 수축시의 두께 비율로 측정하였다. 일차 결과 변수로는 기계 환기 적용 기간, 이차 결과 변수로는 합병증의 유무 (재삽관, 기관 절개술, 장기간의 기계 호흡 또는 사망)가 수집되었다. 상관 관계는 연령, 질환의 중증도, 패혈증, 진정, 신경 근육 차단제 및 타 질환 유무로 표준화하였다.

측정값 및 주요 결과

211명의 환자 중 191명에서 두 번 이상 횡격막 두께를 측정을 하였다. 이중 78명(41 %)에서 4일째 10% 이상의 두께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횡격막 두께 감소는 기계 환기의 이탈 가능성의 감소 (HR 0.69, 95 % CI 0.54-0.87, 10 % 감소 당), ICU 입원 기간의 증가 (기간 비율 1.71, 95 % CI 1.29-2.27), 합병증의 증가 (OR 3.00, 95 % CI 1.34-6.72)와 연관되었다. 한편, 횡격막 두께의 증가 (n = 47, 24 %) 또한 기계 호흡 기간의 증가 (비율 1.38, 95 % CI 1.00-1.90)와 연관되었다. 횡격막 두께 감소는 저하된 흡기 노력과, 두께의 증가는 과도한 흡기 노력과 관련이 있었다. 첫 3일간 횡격막의 두께증가 비율 15-30 % (정상 호흡시와 비슷한 비율)을 보인 환자가 기계 환기 기간이 가장 짧았다.

결론

기계 환기 중 발생하는 횡격막의 위축은 환자의 임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기계 호흡시 환자의 흡기 노력 수준을 건강한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계 환기의 이탈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익한 생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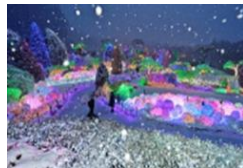
< 2017-2018 겨울 축제를 소개합니다 >

임은옥 간호사(MICU2)



✓ 허브아일랜드 불빛 동화 축제

기간 : 2017.11.01(수)~2018.10.31(수)
주소 : 포천 허브아일랜드
요금 : 일반 6,000원 우대 4,000원



✓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기간 : 2017.12.08(금)~2018.03.25(일)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요금 : 어른 9,000원(8,000원), 청소년 6,500원(6,000원), 어린이 5,500원(5,000원)
어린이: 36개월~초등생, 청소년: 중고등생 (팔호 안은 평일 할인요금)



✓ 강화도 송어,빙어 축제

기간 : 2017.12.23(토)~2018.02.25(일)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중앙로 787번길 8-2
요금 : 성인 18,000원 / 학생(초,중,고) 10,000원 / 미취학 아동 무료



☘ 눈꽃 테마

✓ 태백산 눈 축제

기간 : 2018.01.19(금)~2018.02.11(일)
주소 :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68
요금 : 무료(각종 유료체험은 별도 요금 있음)



☘ 해맞이 테마

✓ 여수 향일암 일출제

기간 : 2017.12.31(일)~2018.01.01(월)
주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요금 : 무료



✓ 평창 송어 축제

기간 : 2017.12.22(금)~2018.02.25(일)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요금 : 얼음낚시 13,000원/ 맨손잡기 15,000원 /놀이시설 6,000원



✓ 보성 차밭 빛 축제

기간 : 2017.12.15(금)~2018.01.14(일)
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775
요금 : 무료



✓ 인제 빙어 축제

기간 : 2018.01.27(토)~2018.02.04(일)
주소 :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요금 : 낚시터 및 행사장 입장 무료, 낚시대·미끼·일부 프로그램은 유료